

전남 대규모 체육행사 올해도 무더기 취소

전남도체육회, 도민체전·어르신 생활체육대축전 등 개최 않기로 코로나 확산 우려에 장애인체육대회 등도 취소...전국체전도 축소

코로나19 여파로 올 가을 열릴 예정이던 전남지역 대규모 체육행사가 무더기 취소됐다. 28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2021년 제33회 전남도생활체육대축전(10월 25일~27일)과 제16회 전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축전(28일~29일)

등 주요 체육행사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최종 취소됐다. 도체육회는 최근 제36차 서면이사회를 열어 보성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들 행사를 전격 취소했다. 도체육회는 "그동안 전남도, 개최지인 보성군과

협의를 통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개최하려고 노력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남 22개 시·군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화합축제인 전남도생활체육대축전 등은 지난 2020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열리지 못하게 됐다. 도는 지난 8월에도 코로나19 4차 대유행 때문에 제60회 전남도체육대회를 취소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제29회 전남도

장애인체육대회와 제5회 전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역시 취소됐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일반인에 비해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대회를 취소하기로 했다. 내년엔 반드시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인들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전국체전도 고등부만 출전하는 '축소대회'로 치러진다. 이번 102회 전국체전은 10월 8

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장애인 체전 기간은 내달 20~25일 6일간이다. 경상북도 구미시 등 1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7개 종목이 열린다. 앞서 2019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100회 전국체전에는 17개 시도 선수단과 18개 해외동포 선수단 등 3만여명이 참가했는데 고등부로 제한된 올해는 2019년 대회 참가자 수의 10% 수준만 출전할 전망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AI 페퍼스' 10월 19일 데뷔전

프로배구 V리그 10월 16일 개막 KGC인삼공사와 창단 첫 경기

페퍼저축은행(AI페퍼스)의 홈구장인 영주체육관이 '페퍼저축은행 AI PEPPERS'로 명명됐다. 광주시는 28일 영주체육관 입구에 '페퍼저축은행 AI PEPPERS' 명패를 설치했다. 페퍼저축은행은 이곳에서 지역 배구팀과 연습 경기를 갖는 등 실력을 점검하며 프로 무대를 준비할 계획이다. 영주체육관은 가변석 500석, 고정석 6800석 등 관람석을 갖추고 있다. 시는 프로배구 팀 경기를 위해 코트를 새단장했다.

페퍼저축은행은 다음 달 19일 오후 7시 이 경기장에서 KGC인삼공사를 상대로 V리그 1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창단 첫 경기다. 프로배구 도드람 2021-2022 V리그는 10월 16일 개막한다. 이날 오후 2시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리는 대한항공과 우리카드의 남자부 개막전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들어간다. 여자부는 같은 날 오후 4시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GS칼텍스와 흥국생명이 개막전을 치른다. 정규리그는 내년 3월 17일까지 6라운드에 걸쳐 진행된다. 포스트시즌은 준플레이오프가 실시될 경우 내년 3월 19일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진행되며, 챔피언

결전전은 5전 3승제로 3월 27일부터 4월 5일까지 개최된다. 올 시즌 여자부는 신생팀 페퍼저축은행의 합류로 남자부와 마찬가지로 7개 팀이 경기를 치른다. 이에 따라 팀당 30경기에서 36경기로 늘어나며, 남자부와 동일하게 7개 팀 총 126경기를 진행한다. 3·4위 간의 준플레이오프도 실시할 예정이다. 여자부가 7개 팀이 되며 경기 요일에도 변화가 생긴다. 지난 시즌 월요일과 목요일에 쉬었던 여자부는 올 시즌엔 남자부와 함께 월요일을 제외한 주 6일 팬들을 찾아간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연합뉴스



"절대 못가" 27일 미국 텍사스 알링턴에서 열린 NFL 경기 전반전에서 델러스 카우보이스의 트레본 디스(7)와 모리스 캐나다(오른쪽)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쿼터백 잭슨 허츠(가운데)를 제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영·다영 자매 이적동의서 29일 직권 발급

국제배구연맹, 그리스 구단에 공문 국제배구연맹(FIVB)이 그리스 진출을 도모하는 이재영·다영(이상 25) 쌍둥이 자매의 국제이적동의서(ITC)를 29일 직권으로 발급할 것으로 보인다. 배구계에 따르면, FIVB는 대한민국배구협회와 쌍둥이 자매가 계약한 그리스 PAOK 테살로니키 구단에 28일(한국시간) 공문을 보내 ITC 승인 절차를 설명했다.

FIVB는 먼저 대한배구협회가 ITC 승인 수수료 성격의 돈을 받을 수 있도록 PAOK 구단에 은행 계좌번호를 중유립 일광절약시간제 기준 29일 정오(한국시간 29일 오후 7시)까지 보내라고 적시했다. 이어 마감 시한까지 계좌 번호를 보내지 않으면, FIVB가 자매의 ITC를 승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배구협회는 국내 선수 해외 진출 자격 제한을 명시한 선수 국제 이적에 관한 자체 규정을 근

거로 쌍둥이 자매의 ITC 발급을 할 수 없다는 의사와 함께 ITC 발급과 관련한 이적 수수료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지난 24일 FIVB에 전달했다. 배구협회의 확고한 ITC 거부 의사를 최종 확인한 만큼 FIVB가 애초 24일 직권으로 ITC 발급을 승인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FIVB가 그간 ITC 발급과 관련한 여러 분쟁 사례 등을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하느라 최종 결정이 지연됐다는 게 배구계의 시각이다. ITC를 발급할 수 없다고 주장해 온 배구협회의 태도가 하루 사이에 달라질 가능성은 극히 낮아 결국 FIVB가 29일 오후 7시 이후 직권으로 이재영·다영 자매의 ITC를 발급할 게 유력해졌다. /연합뉴스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이 지난해 개최한 '제42회 광주전남등산학교 정규반·암벽반' 수료식.

광주전남등산학교 10월 1일 문 연다

4일까지 월출산 일대에서 개최

광주·전남지역 알피니스트의 산실 광주전남등산학교가 다음달 1일 문을 연다.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은 '제43회 광주전남등산학교 정규반·암벽반'을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3박 4일간 영암 월출산국립공원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단법인 광주전남등산학교의 주관, 광주시와 전남도, 영암군,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의 후원으로 치러지는 이번 등산학교는 광주와 전남지역 대학 산악 동아리 회원들을 비롯해 등산에 관심 있는 이들이 입교해 산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쌓을 계획이다. 입교생들은 정규반과 암벽반으로 나눠 훈련한다. 이들은 야영과 취사연습, 산행 중 처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대한 안전대책, 응급 처치와 동·서양의 알피니즘에 대한 철학, 독도법, 해외 고산등반 등 전반적인 교육을 받는다. 장비관리, 매듭법, 하강, 확보 등의 등반 기술에 관해 이론과 실습도 병행한다.

교육생들은 월출산 정상 천황봉으로의 야간산행을 통해 교육 전반에 대해 실습하고 평가받은 후 등산학교를 마치게 된다. 광주전남등산학교 서은호(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회장) 교장은 "우리 지역의 정통 산악인을 양성하는 하계 등산학교가 43회째를 맞이하며 지역 산악사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코로나 19가 사그라들지 않는 엄중한 시기이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교육생들의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대 산악회 출신으로 광주·전남 산악사 발전과 후학 양성에 힘써 온故 정순택 산악인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돼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정순택 산악상' 수상자에는 이정현(52·순천대 산악회OB)씨가 선정됐다. 이정현씨는 1992년 순천대 재학시절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과 대구·경북학생산악연맹이 꾸린 '포베다·칸텐그리 텐산 원정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 등의 술한 해외 고산 등정을 수행해 왔고 후진 양성 등을 위해 노력하는 등 그간의 공로가 인정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해밀턴 역대 첫 F1 100승... '살아있는 역사'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포뮬러원(F1) 무대에서 루이스 해밀턴(36·영국·메르세데스)은 '기록의 사나이'를 넘어 '살아있는 역사'가 됐다. 해밀턴은 27일(한국 시간)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크라이의 소치 아우토타롬(5.848km·53랩)에서 끝난 2021 러시아 그랑프리 결승에서 4번 그리드에서 출발하는 악재를 이겨내고 1시간 30분 41초 001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체커기를 받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러시아 그랑프리 우승으로 해밀턴은 F1 입문 15년 만에 역대 처음으로 통산 100승 고지를 밟은 드라이버가 됐다. 해밀턴은 명실상부한 'F1 기록 제조기'다. 2007년 헤센갈이 F1 무대에 등장한 해밀턴은 차곡차곡 승수를 따내며 전설 슈마허의 기록을 깨기 시작했다.

2020년 10월 포르투갈 그랑프리에서 개인 통산 92승을 달성하며 미하엘 슈마허(52·독일)가 보유했던 최다 우승(91승) 기록을 넘어선 해밀턴은 그 해 11월 터키 그랑프리 우승으로 통산 7번째 시즌 챔피언(2008년, 2014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자리에 올라서며 또다시 슈마허(통산 7회 챔피언)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해밀턴은 지난 5월 스페인 그랑프리 예선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270번째 그랑프리 출전에서 F1 역대 처음으로 개인 통산 100번째 폴포지션의 위업도 달성했다. 슈마허(독일·68회), 고(故) 아일톤 세나(브라질·65회)를 능가하는 대기록이었다. 해밀턴은 지난 8월 헝가리 그랑프리에서 폴포지션을 또 잡으면서 개인 통산 폴포지션 기록을 101회로 늘렸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007 노 타임 투 다이, 기적
2관	007 노 타임 투 다이, 모가디슈, 수색자 국장판 정구는 못말려, 격돌! 낙서왕국과 알추 네 명의 용사들
3관	기적
4관	007 노 타임 투 다이, 보이스
5관	007 노 타임 투 다이, 용과 주근깨 공주, 캔디맨
6관	007 노 타임 투 다이, 보이스
9관	007 노 타임 투 다이, 보이스 극장판 포켓몬스터: 청결의 아이, 코코
7관 씨네커블	상지와 텐 린즈의 전설
8관 씨네커블	용과 주근깨 공주, 수색자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2021년 10월 11일 ~ 10월 15일

제3회 GAC공연예술축제 그라제

일시 : 2021. 10. 01.(금) ~ 10. 05.(화)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 062-613-8235, 8237

GAC 11시 음악산책 7 박은식의 피아노의 숲

일시 : 2021. 10. 27.(수) 11: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2

즐거움
문화산책